

2009. 7. 6 제218호

세계도시동향

목 차

문화·디자인

1. 지하철에서 사랑의 대화를 나눠요 (파리)
2. '자전거 출근' 여름 캠페인 (독일)
3.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 축제 개최 (파리)

산업·경제

4. 경제 재활성화 대책 마련 (뉴욕)
5. 신에너지산업 투자로 풍력발전 최대 수혜 (상하이)

건강·복지

6. 청소년의 '시민 멘토' 모집 (뉴욕)
7. 보육시설 급식에도 아동비만 예방을 위한 최소 기준 적용 (캘리포니아주)
8. 불필요한 예산 아껴 여성폭력대책센터에 대폭 지원 (런던)
9. 독일 최초로 전자 건강카드 도입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10. 지역 중심 사회복지 강화 (상하이)

목 차

행정·재정

11. 회사 설립 절차를 간편하고 빠르게 (베를린)
12. 도시 이미지 재브랜드화를 위한 홍보위원회 설치 (런던)
13. 주요 세금 징수 강화 (중국)

방재·안전

14. 허리케인 피해자에게 제공한 임시주택을 1달러에 판매 (미국)

도시환경

15. 전기 자동차용 급속충전 설비 정비 (도쿄)
16. 도립공원에서 마을 숲(사토야마) 체험 (도쿄)
17. 기업이 자사 상품의 중고품 채수거 의무 (브라질 상파울루市)
18. 대형차량 운영업체가 전기 자동차 전도사로 나서 (런던)
19. 음식 쓰레기를 에코 연료로 사용 (런던)
20. 유람선 필터 교체로 매연 배출 방지 (베를린)

도시교통

21. 자전거 고속도로 시범사업 (런던)

도시계획·주택

22. 청소년과 함께 계획하는 도시 개발 프로젝트 공모전 (독일)
23. 시민 불편 초래하는 시공사 단속 (상하이)

1. 지하철에서 사랑의 대화를 나눠요 (파리)

○ 파리는 ‘사랑의 대화’ 행사의 하나로 승객이 지하철역에서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는 이벤트를 마련함.

- 이번 이벤트는 승객이 지하철에서 사랑의 미니 메시지로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신기술을 이용해 도시환경과 교통시스템에 바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음.

· 승객이 함께 만드는 사랑의 미니 메시지는 트위터(twitter) 프로그램으로 공유함.

- 메시지는 도시 풍경이라는 가상의 태그로 저장되며, 국제기숙사 역과 국립예술학교의 대형 모니터에서도 볼 수 있음.

(www.paris.fr/portail/deplacements/Portal.lut?page_id=2&document_type_id=2&document_id=69374&portlet_id=21994)

2. ‘자전거 출근’ 여름 캠페인 (독일)

○ 독일 최대의 의료보험회사인 AOK와 독일 자전거 클럽이 매년 실시하는 여름 캠페인 ‘자전거 출근’이 6월 1일부터 시작함.

- 이 캠페인은 2001년 바이에른주에서 시작되었으나 2003년부터 독일 전역으로 확대 실시되었고, 현재 독일 연방 교통부와 건강복지부가 지원함.

· 2008년의 경우 17만 명이 이 행사에 참여함.

· 이 캠페인은 환경보전에도 기여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됨.

· 독일에서는 약 700만 명의 직장인이 자전거로 출근하고 있음.

- 도시마다 운영본부를 두고 직장별, 그룹별로 작은 팀을 만들어 함께 참여해 실행력을 높임.

- 참가팀은 AOK의 웹사이트에 팀 등록을 하고, 팀장은 국가 보험회사에서 자전거 출근 캘린더를 받음. 이것을 팀원에게 나눠주고 2009년 8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 날짜를 기록하게 함.
- 팀원이 모두 20일 이상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으면 기록 캘린더를 국가보험회사에 보내고, 국가보험회사는 추첨으로 자전거, 헬스기구, 여행상품권, 호텔 숙박권과 같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함.
- 직장까지 자전거로 출근하는 것뿐 아니라 집에서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음.

(www.mit-dem-rad-zur-arbeit.de/berlin/aktion.htm)

3.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 축제 개최 (파리)

○ 파리는 2009년 6월 7일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 축제를 개최함. 일 드 프랑스 파리 수도권 지역 100여 개 도시에서 각자 출발해 파리에 도착하는 여정임.

- 긴 자전거 여정을 위해 소금을 약간 가져와야 하며, 참가자는 흥겨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 코스프레 복장을 해도 됨.
- 이번 행사의 목적은 파리의 어떤 길에서도 자전거를 탈 수 있고, 환경보전에 자전거가 필수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있음.
 - 파리는 이번 행사를 유럽 전체의 축제로 만들고자 노력함.

(www.paris.fr/portail/deplacements/Portal.lut?page_id=2&document_type_id=2&document_id=69107&portlet_id=21994)

한 줄 뉴스

- 캘리포니아州
 - 유아 젖병 및 식기 제조 시 환경호르몬 성분 사용 금지
- 상하이
 - 관광객이 숙박, 음식점, 교통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하이 여행카드' 발급

산업 · 경제

4. 경제 재활성화 대책 마련 (뉴욕)

○ 뉴욕市가 최근 경기불황 타개책으로 '뉴욕 5개 지구 경제활성화 계획'(The City's Five Borough Economic Opportunity Plan)을 발표하는 등 빠른 시간에 뉴욕市 경제를 재활성화할 계획임.

- 이번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뉴욕市의 장기 성장계획 수립, 살기 좋고 편안한 주거환경 건설임.

- 市는 시민 1만여 명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고자 3200만 달러의 재원을 마련함.

· 패션 관련 소매상을 지원할 수 있는 '뉴욕 패션의 밤'을 운영함.

· 5만 1000여 명의 대학생에게 여름방학 인턴십을 지원함.

· 시민단체 등 비영리조직을 지원해 49만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

(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1c789a0/index.jsp)

5. 신에너지산업 투자로 풍력발전 최대 수혜 (상하이)

○ 상하이市는 린강신청(临港新城) 산업단지에 중국 최대의 풍력발전설비 생산기지를 조성함. 중앙정부의 신에너지산업 집중 육성에 발맞춰 향후 수요를 대비하고 市의 성장 엔진을 구축할 계획임.

- 이 프로젝트는 린강 산업단지에 건설된 중국 최대 핵 발전설비 제조기지 조성 후, 발전 및 배전산업을 뒷받침할 제2의 신에너지 산업기지임.

- 현재 건설 중인 린강신청 동항(东港) 지구 1기공사는 풍력발전 물류시스템의 핵심 구성부분임.
- 2020년까지 항구 출입 화물 물동량이 226만 9000톤에 달할 예정임.
- 2008말 기준 중국 풍력발전량은 894만kW로 세계 4위와 아시아 1위를 기록했으며, 2010년에는 2000만kW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news.163.com/09/0522/15/59U8ULVT0001124J.html)

건강 · 복지

6. 청소년의 ‘시민 멘토’ 모집 (뉴욕)

○ 뉴욕시는 시 교육위원회, 각 학군별 사무소와 함께 관내 학생의 방과 후 지도와 특별활동을 도와 줄 자원봉사자인 ‘시민 멘토’를 모집함.

- 매월 8시간씩 관내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줄 지역민을 연결하는 이 프로그램은, 편모·편부 가정과 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인생과 학업의 조언자를 연결해 인격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함.
- 멘토가 되기를 희망하는 시민이 지원서를 접수하면, 교육위원회와 각 학교에서 학생과 공통분모를 찾아 1대 1로 맺어줌.
 - 만 18세 이상 남녀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원자격이 되며, 선정되면 1년간 봉사해야 함.
- 멘토와 학생은 최소 2주일에 한 번씩 만나며, 멘토는 학업·문화예술·상담·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과제 등 학업에서부터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상담과 조언을 함.

(www.volunteernyc.org/org/opp/10328046117.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뉴욕시는 시민을 청소년의 멘토로 활용해 청소년의 학업을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과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민과 청소년을 멘토와 멘티로 맺어주면, 청소년은 인생 및 학업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고, 시민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조언해줌으로써 학생에게 변화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멘토 자신도 성장할 수 있음.
 - 멘토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청소년을 1주일에 한 번 학교로 방문해 학업 및 미래 진로 계획을 대화함으로써, 멘티 청소년이 희망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임.
- 서울시의 경우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저소득층 학생을 맺어 학업지도 및 학교 생활에 대한 조언과 진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동행(同幸)프로젝트’를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자치구도 대학생을 활용한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대학생을 활용해 교육적 배려 대상자 학생과 멘토와 멘티를 맺어 방과 후에 부족한 학업지도, 상담, 조언의 역할을 하도록 함.
 - 대학생뿐 아니라 뉴욕시처럼 멘토를 일반 시민으로 확대해 활용하는 방안도 의미 있으며, 특히 미래 직업 및 진로 지도에 관한 멘토로 활용하면 좋을 것임.

/이혜숙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lhsook1@sdi.re.kr)

7. 보육시설 급식에도 아동비만 예방을 위한 최소 기준 적용 (캘리포니아州)

○ 캘리포니아州 하원은 보육시설의 급식 식단 최소기준을 정하는 법안을 가결함.

- 이 법안은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지방이나 염분 함량 등 학생의 건강을 위한 규제가 있던 것을 보육시설까지 확대한 것임.
 - 한 연구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유치원생의 20.7%가 비만이고, 2~5세 아이의 25%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임.
- 이번 규제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아동비만을 줄이는 데 있음.
 - 점심이나 저녁 급식에 채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2살 이하의 어린이에게 고지방 우유 급식을 금지함.
 -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2살 이상의 어린이에게 저지방이나 탈지

우유를 제공해야 하고, 시리얼에 포함된 설탕의 양도 제한되며 튀김이나 단 음료는 금지됨.

- 영양 섭취와 신체활동을 평가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18개월간 시행할 예정임.
(www.latimes.com/news/local/la-me-daycare8-2009jun08,0,4056305.story)

>>> 전문가 검토의견

- 좋은 식습관이 건강을 좌우하고 아동·청소년기의 건강이 평생건강의 토대가 되므로, 보육시설과 학교의 집단급식에 대한 최소기준 설정과 이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함.
 -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다른 만큼 보육시설과 학교 집단급식의 최소기준 내용도 달리 적용해야 함.
- 우리의 경우, 보육시설이나 학교 집단급식에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인공조미료 및 첨가물 함량이 높은 식품을 규제하는 등 급식의 질 향상과 안전성을 급식 기준에 포함해야 할 것임.
 -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급식재료비 보조 등 제도적 장치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

/신경희 창의시정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skhee@sdi.re.kr)

8. 불필요한 예산 아껴 여성폭력대책센터에 대폭 지원 (런던)

-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확대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은, 절약한 예산 중 140만 파운드(약 28억 8000만원)를 투입해 여성폭력대책센터를 설립할 계획임.

- 센터설립 계획은 여성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정책 전략인 ‘The Way Forward’에 수록됨.
 - 런던시는 여성 폭력을 막는 데 경찰, 구청, 민간단체, 의료기관, 검찰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함.

- 현재 市가 운영 중인 성폭력대책센터는 한 곳인데, 이번 계획으로 향후 3년간 추가로 설치·운영됨.
 - 市는 예산 투입에 앞서 성폭력 범죄 대책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여성폭력대책센터는 성범죄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정폭력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 방지와 근절, 피해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함.
 -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218)
 -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1757)

9. 독일 최초로 전자 건강카드 도입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의 보쿰-에센 지역에서 독일 최초로 전자 건강카드가 도입됨. 10월 1일부터 보험가입자에게 전자 건강카드가 발행되고 종합병원과 개인병원에는 전자 건강카드 체크기계가 설치됨.
 - 전자 건강카드는 2007년부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의 7개 지역에서 시범으로 실시해, 약 3년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실행에 이룸.
 - 전자 건강카드에는 보험가입자의 정보와 사고 및 질병 데이터, 치료약의 처방기록이 입력됨.

(www.focus.de/gesundheit/gesundheits-news/deutschland-elektronische-gesundheitskarte-ab-oktober-zunaechst-in-nordrhein_aid_406681.html)

한 줄 뉴스

● 도쿄

- 세계에서 활약할 젊은 패션 디자이너 발굴·육성 프로젝트 실시
- 금융사기에 걸리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소비생활 강좌

● 베를린

- 2009년 6월 7일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제14회 환경축제인 ‘기후 보호 체험하기’ 개최

10. 지역 중심 사회복지 강화 (상하이)

- 상하이市는 지역구를 중심으로 학교, 가정, 사회를 잇는 교육시스템 망을 강화하기로 함.

- ‘지역구가 아이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모토로 시정부가 나서 지역 복지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역구에 소재한 대학 및 개인을 중심으로 학습 멘토링을 신청받아 5000여 개의 주민회에 대학생 멘토를 연결함.
- 박물관과 기념관에도 사회봉사 지원자를 적극 활용할 방침임.
- 市 교육부는 ‘교사 지역구 봉사’를 추진하여 정년퇴직한 교사나 청년 교사의 지역구 봉사를 강화할 예정임.
- 방학기간에 지역구나 학교에 다양한 무료 강연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임.

(www3.xinhuanet.com/chinanews/2009-06/10/content_16763013.htm)

행정 · 재정

11. 회사 설립 절차를 간편하고 빠르게 (베를린)

- 베를린市는, 회사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관청을 거쳐야 했던 불편을 해소

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수속이 더 빨라지게 할 시립 상담소를 설치할 계획임.

- 베를린市 경제부는 상공업회의소, 市 수도 발전 회사, 독일 노조연합 베를린 지부와 공동으로 일원화된 상담소를 설치함.
 - 이 상담소는 베를린市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회사에 입지정보를 제공하고, 회사 설립과 운영 관련 수속절차를 도와주며, 직원에 대한 노동권과 사회 보장법 등의 정보도 제공함.
 - 원래 상담소는 유럽연합 국가 간 회사 설립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유럽연합 국가 회사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음.
 - 베를린市는 가능한 많은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독일 및 유럽연합 국가 외 외국회사에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6/09/129615/index.html)

12. 도시 이미지 재브랜드화를 위한 홍보위원회 설치 (런던)

○ 런던市는 런던의 재브랜드화를 촉진할 ‘홍보위원회’(Promote London Council)를 설치함.

- 런던시장은 런던을 홍보하는 여러 주요 기관과 비즈니스 그룹과 만나 새로운 위원회가 어떻게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런던을 홍보할 것인지 논의함.
 - 특히 2012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홍보도 논의함.
- 홍보위원회는 방문객과 사업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할 계획임.
- 런던시장은 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관광, 내부 투자, 외국학생 유치, 영화와 같은 런던의 핵심영역을 최대한 활용해 홍보를 주도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398)

13. 주요 세금 징수 강화 (중국)

- 중국정부는 경기 부진으로 재정수입이 줄어들면서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중국 세무총국은 2009년 개인 및 기업소득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의 탈세를 방지하고 엄격히 징수해 적정 수준의 세수를 확보하기로 함.
- 세무총국은 특히 기업소득세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함.
 - 기업소득세 관리지침에 따라 업종별 정보를 수집하고 심사를 철저히 해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함.
 - 기업소득세 특혜 심사도 강화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세수특혜를 취소함.
 - 기업소득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방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함.
- 부가가치세는 농산물 구입 및 판매 영수증을 이용한 탈루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서류심사를 강화하기로 함.
- 재산세는 토지사용세와 자동차세, 선박세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세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함.

(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48/n8136623/9040053.html)

방재 · 안전

14. 허리케인 피해자에게 제공한 임시주택을 1달러에 판매 (미국)

- 미국 남부지역을 강타한 두 번의 허리케인 피해로 연방재난관리청(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은 14만 3000여 가구에 이동식 주택과 트레일러를 임시주택으로 제공하는 임시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음.
- 아직까지도 루이지애나주와 미시시피주는 3400명 이상이 FEMA 트레일러에

서 거주하고 있는데, 긴급 주택지원이 2009년 5월 1일로 종료되면서 여기서도 모두 내쫓기게 될 상황에 직면함.

- 연방재난관리청은 정부가 제공한 트레일러에서 거주하는 허리케인 피해자에게 1달러에 트레일러를 구입할 수 있게 함.
- 미국 정부는 2005년 허리케인으로 집을 잃은 트레일러 거주자에게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약 5000만 달러(약 630억 원)를 지원할 계획임.

- 단기적으로는 이 방안이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구 거주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함.

(www6.lexisnexis.com/publisher/EndUser?Action=UserDisplayFullDocument&orgId=1593&topicId=21355&docId=1:983794409)

도 시 환 경

15. 전기 자동차용 급속충전 설비 정비 (도쿄)

- 2009년 7월 이후 실용성이 높고 환경 부하가 적은 차세대 전기 자동차가 출시될 예정임.
- 전기 자동차는 가솔린차에 비해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가스가 적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는 프로젝트가 시행 중임.
- 도쿄都는 전기 자동차의 편리하고 쾌적한 주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급속충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실시함.
 - 대상 사업자는 도내 급속충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로, 5년 이상 설비 이용을 무료로 개방해야 함.
 - 보조금액은 급속충전 설비 본체의 약 1/4(설치 공사비 제외)로 상한액은

87만 5000엔(약 1000만 원)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6/20j63900.htm)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쿄都를 포함해 런던 등 세계 주요도시에서는 교통 분야의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전기 자동차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 일본은 2015년까지 모든 우편배달차를 전기 자동차로 바꿀 계획이고, 공공서비스 부문을 시작으로 점차 통근용 전기 자동차까지 보급할 계획임.
- 전기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기 자동차 이용의 편리성 확보 차원에서 충전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 서울시는 전기 자동차 활성화 정책과 보조를 맞춰 충전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할 시점으로, 일반 차량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서울시 주요 전략지역 및 지점에 설치해야 함.
- 민간 시설물에 설치할 경우 민간 주도로 추진하되, 서울시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충전시설 표준화, 디자인, 운영방법 등도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고준호 도시기반연구부 부연구위원(jko@sdi.re.kr)

16. 도립공원에서 마을 숲(사토야마) 체험 (도쿄)

- 사토야마(마을 숲)는 마을에서 가깝고 생활과 밀접한 산으로, 여러 기능을 함. 최근 사토야마 보전과 관련하여 자연공생 사회 재구축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사토야마를 체험하고 그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 도립공원에서 김매기, 허수아비 만들기 체험 이벤트를 실시하기로 함.
- 김매기 체험 이벤트는 2009년 6월 28일과 7월 11일, 허수아비 만들기 이벤트는 8월 29일 실시됨.

>>> 전문가 검토의견

- 사토야마(마을 숲)는 풍부한 녹지 공간이자 주민의 커뮤니티 활동과 자연학습 활동을 통해 지역의 자산이 되고 있음.
 - 환경보전 기능과 레크리에이션의 장으로서 중요한 공간이지만, 개발과 방치로 훼손되고 있어 위협받고 있음.
- 그린벨트 지역과 도시의 자연공원 주변에 있는 마을 숲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단체나 재단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지원·관리하는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함.
 - 시민사회 단체는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각종 프로그램 개발해 시민이 자연 학습과 농경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기 관찰회, 체험강좌, 환경조사, 기념 이벤트, 걷기행사, 재배 생산물 체험 행사, 간행물 발간 등 각종 활동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음.

/김원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wjkim@sdi.re.kr)

17. 기업이 자사 상품의 중고품 채수거 의무 (브라질 상파울루市)

- 상파울루市는 2009년 5월 말부터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플라스틱 용기를 재활용하거나 채수거하게 함. 이러한 조치로 기업은 상품이나 포장용기 재활용과 채수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
 - 특히 전자제품 업체나 전화기 업체는 방치된 사용가능 중고품의 채수거 의무화에 관심을 보임.
 - 유럽은 중고제품 수거 책임이 제조업체에 있음.
 - 브라질 채수거위원회에서 118개 브라질 회사를 대상으로 상품 채수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래 전부터 재수거가 의무화된 타이어나 독성제품 포장기업에서 재수거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밝혀짐.

- 몇몇 전자제품업체도 법적으로 의무화 규정은 없지만 재수거를 하고 있음. Telefonica, Terra, Vivo그룹은 고장난 제품과 버려지는 중고품의 재수거 및 재활용 센터 TGestiona를 2008년 말에 창설함.
 - 현재 매월 7만 6000대의 중고품이 가정집과 기업체에서 수거되며, 수거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재활용 업체로 넘겨짐.
 - TGestiona는 아직까지 중고품을 재수거하는 사업이 별 수익이 없지만 앞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함.

(estadao.com.br/estadaodehoje/20090513/not_imp369890,0.php)

18. 대형차량 운영업체가 전기 자동차 전도사로 나서 (런던)

- 런던시는 대형 차량을 운영하는 대기업 대표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전기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함께 힘쓸 것이라고 밝힘.
- DHL과 같은 대형 통운업체, 막스 앤 스펜서, 세인즈버리 등 대형 마트 7개 회사 대표는 소속 회사가 전기 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 이용에 적극 나서고, 관련 업계 관계자에게 전기 자동차 이용 경험을 널리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하기로 함.
- 소형차량보다 기술 발전과 적용 속도가 빠른 대형 전기차량은 이미 영국 전역에 500대 가량 운영되고 있으며, 런던시는 전기 자동차의 도심 혼잡통행료를 면제함.
- 대형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환경오염 감소와 운영 회사의 비용 절감, 신개발 분야인 전기 자동차 사업 육성으로 이어져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런던시는 전기 자동차 이용 관련 홈페이지(www.london.gov.uk/electricvehicles)를 개설하고, 무료 상담과 지원 사업을 함께 시행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338)

19. 음식 쓰레기를 에코 연료로 사용 (런던)

- 런던시는 쓰레기를 에코 연료로 전환하여 쓰레기 매립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계획을 최근 발표함.

- 런던시는 매년 300만 톤의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이 중 3분의 2가 매립되거나 소각되어 기후변화에 영향을 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 쓰레기에서 에코 연료를 뽑아 가정, 공공교통, 자동차에 사용하는 기회를 제공함.

- 런던시는 런던에 5개 바이오연료 모델 플랜트를 2012년까지 조성할 계획임.

-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버려진 식용유에서 바이오 연료를 정제하며, 쓰레기나 퇴비에서 수소를 추출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378)

20. 유람선 필터 교체로 매연 배출 방지 (베를린)

- 베를린시 환경부와 베를린 유람선 회사인 'Stern & Kreis Schifffahrt'는 새로운 매연입자 필터를 장착한 유람선을 소개함.

- 유람선 운행은 환경구역의 자동차 운행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필터 장착은 유람선 회사의 선택사항임.

- 베를린시는 이를 매연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보고, 유람선에 새로운 매연입자 필터 장착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함.

- 베를린市에는 유람선이 많기 때문에 유람선에서 배출되는 매연은 승객과 강가 보행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음.
- 유람선마다 필터 시스템이 달라서 새로운 필터 장착이 비용과 기술 측면에서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함.
 - 두 대의 유람선에 각각 다른 방식의 매연입자 필터를 장착하고 실용성과 효력을 2년간 테스트하기로 함.
- 베를린市 환경부는 필터 장착에 약 3500만 원과 매연 배출 측정에 약 8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6/10/129764/index.html)

도 시 교 통

21. 자전거 고속도로 시범사업 (런던)

- 런던市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 12개의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Cycle Superhighways)를 만들기로 하고, 시범사업 도로 두 곳을 지정함.
 - 현재 런던市는 각 구간이 포함된 8개 자치구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0년 5월부터 이용할 수 있음.
 - 나머지 10개 구간은 시범구간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런던 전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지정하고, 2012년까지 운영에 들어갈 계획임.
 - 자전거 고속도로의 각 구간은 약 10~15km 길이로, 주거지역과 도심 상업지역을 연결함.
 - 도로 구성면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개설하기보다 자치구 관리 도로와 런던교통공사 관리 런던교통망(TLRN : Transport for London Road Network)을 연계해 활용할 계획임.

- 구간별로 알아보기 쉬운 표지판과 교통 신호기를 설치하고,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자전거 대기선과 자전거 이동선을 표시하며, 자전거 이용을 방해하는 턱이나 방해물을 최소화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318)

(www.london.gov.uk/news/docs/cycle-superhighways-map.pdf)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시장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2025년까지 탄소 배출을 60% 줄이는 방안 중의 하나로 자전거 이용 촉진 정책을 마련함.
- 런던시는 자전거 이용률이 2%로, 기타 유럽국가의 대도시에 비해 저조한 편임.
- 자동차 중심의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을 수정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마스터 플랜’이 2005년 시의회에서 승인받음.
- ‘런던 사이클 실행 계획’에 따르면 런던 도심에 자전거 고속도로와 더불어 총 900km의 자전거 도로를 연장할 계획임.
- 서울시는 지난해 207km의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계획 이외에 도심과 남산, 한강을 연계하는 88km 자전거 전용 순환도로망을 추가 구축하여 자전거 출·퇴근 시대를 계획하고 있음.
- 서울시와 런던시는 출·퇴근자 중심의 고속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높이려는 유사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자전거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골목과 이면도로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홍석기 창의시정본부 연구위원(skhong@sdi.re.kr)

도시계획·주택

22. 청소년과 함께 계획하는 도시 개발 프로젝트 공모전 (독일)

○ 독일연방 건설부는 ‘청소년이 만드는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도시구역 개발 콘셉트를 찾고 있음.

- 독일 연방 건설부는 도시계획 과정에 청소년의 관심을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포함하자는 취지임.

- 프로젝트는 지역 청소년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주택건설회사, 대학이나 개인 또는 단체는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만들어 2009년 말까지 응모할 수 있음.

(www.bmvbs.de/-,302.1078722/Projekte-gesucht-Jugendliche-g.htm?global.back=/)

23. 시민 불편 초래하는 시공사 단속 (상하이)

○ 2009년 市 전체 건설공사가 8000건으로 2008년에 비해 50% 늘어 소음과 먼지, 교통체증이 나날이 심각해지자 시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신축이나 확장 건설, 개축 등 건설 및 인테리어 공사에서 철거 공사까지도 단속대상임,

· 벌금을 부과하며, 심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임.

- 관리감독 부문에 따르면 홍차오 지역, 엑스포 단지 외부도로 등이 중점 단속 지역이 될 예정임.

(bank.hexun.com/2009-05-21/117891306.htm)

한 줄 뉴스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2009년 6월 12일 '연인의 날' 맞아 연극 1편에 500원으로 관람
- 런던
 -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기관을 모범사례로 선정해 시상
 -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 파운드(약 60억 원) 대출 펀드 조성